틴틴 사자성어

畵龍點睛

화 룡 점 정

☞ 가장 요긴한 부분을 마치어 완성시킴

남조의 양나라 사람인 장승요(張僧繇)가 금릉의 안락사에 두 마리의 용을 그리고 눈동자를 그리지 않았다. 매번 그가 이야기하기를 점을 찍으면 곧 날아가 버린다고 하였다. 사람들이 허망한 말이라고 생각하였으나, 그 한 마리의 용에 점을 찍었더니 순간 뇌성을 치며 벽을 부수고 하늘로 올라갔다. 그러나 한 마리 용은 점을 찍지 않아 그대로 있었다. 수형기(水衡記)에 나오는 이야기로 문장이나 그림의 중요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채워 넣는다거나 어떤 일의 중요한 부분을 완성시킨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고사성어다.

畵 6급	그림 화 田부 · 13획	畵	畵			龍 4급	용 룡 龍부 · 16획	龍	龍
點 4급	점 점 黑부 · 17획	點	點			睛 1급	눈동자 정 目부 · 13획	睛	睛

※ 그 畵家(화가)의 그림이 이제 完成될 단계에 있다고 한다. 畵龍點睛의 마지막 붓놀림이 끝나면 名作(명작)으로 길이 빛날 것이다.

틴틴한자

外交 외 교 : ①일을 하기 위하여 밖의 사람과 교계함 ②자기 나라의 대외 정책을 실현하고, 나라 사이에 생기는 일을 처리함

※ 外遊(외유) 外務(외무) 內外(내외) · 交涉(교섭) 交信(교신) 親交(친교)

外 4급 밖 외 — 부수 : 夕(저녁 석) 총획 : 5획

交 6급 사귈 교 — 부수 : 亠(머리 두) 총획 : 6획

※ 국가를 대표하는 大使(대사)는 주재국과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국익의 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外交 활동을 전개한다.